

지속가능성관련 정보 의무공시의 득과 실

남 혜정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namhj@dongguk.edu)

2024. 10. 16

목 차

- ❖ 서론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지속가능성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ESG보고서 의무공시의 득과 실
- ❖ ESG보고서의 의무공시

서론

-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논의
- ▶ 올해 금융위원회와 KSSB는 지속가능성관련 정보공시 기준(공개초안)을 발표
 - ▶ 올해안에 공시기준이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
 -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을 파악하고 관련활동이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공시
 - ▶ 기후관련정보를 시작으로 생태다양성, 인권, 인적자본 등으로 확대될 예정
- ▶ 이미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 ▶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 데이터 수집 및 공시제도 대응준비에 어려움을 제기
 - ▶ 글로벌 기업 중 29%만이 ESG공시준비가 되었다고 응답 (KPMG Global ESG공시지수 설문조사, 2024)
-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의 의무화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인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공시
 - ▶ 1992년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200대 기업의 약 75%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코스피 상장사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2년 131개사, 2023년에는 166개사로 증가
 - ▶ 업종별로는 건설, 조선, 물류, 무역, 보험, 철강, 기계업의 공시율이 100%/ 금융지주는 77/8%/ 제약바이오는 72.2%
- ▶ 한국거래소(KRX)의 ESG포털(<https://esg.krx.co.kr>)에서 공시자료 확인가능
- ▶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고서명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 등 다양
- ▶ 대부분의 기업(90%)은 보고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65%가 6월-8월 사이에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작성기준

- ▶ GRI, SASB, TCFD, UN SDGs, UN GC 등
- ▶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마다 사용하는 작성기준이 다양
- ▶ 각자의 관심사항과 부각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공시

기업간 비교가능성제고를 위하여 기준의 표준화 필요 → 공시의무화

▶ 인증기준

- ▶ AA1000시리즈를 가장 많이 사용(2022년 기준 81%), AA1000AS와 다른 인증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 회계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ISAE3000의 사용비율은 7%(2022년)
- ▶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설팅기관에 인증받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는 미미
- ▶ 반면에 전세계 주요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57%가 회계법인이 인증(IFAC, 2023)

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 필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vs ESG 보고서

- ▶ 향후 의무공시가 되면 ESG보고서의 공시정보, 공시범위, 공시시기도 표준화되면서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

공시연도	기 존	2026 ~
공시형태	자율공시	의무공시
작성기준	자체기준 (GRI, SASB, TCFD 등)	글로벌 표준화 (국내는 KSSB)
중요내용	환경적/사회적 영향	재무적 영향
보고서명	자체적으로 결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ESG보고서, 통합보고서 등)	사업보고서내(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논의 중
보고시기	차년도 5~8월경	사업보고서와 동일 ⁶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 ▶ 2023년 8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 ▶ 이 중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 ▶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년의 보고기간/ 6월 발행/한 개 이상의 작성기준 적용/ 인증은 컨설팅기관 혹은 협회
- ▶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초기 단계이며, scope 1, 2, 3에 대한 정보는 일부회사만이 공시하다가 2023년에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제외한 상장보험사는 scope 3에 대한 정보를 공시
 - ▶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탄소배출량이 scope1과 scope2보다는 scope3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것과 달리 scope3배출량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도 있음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보험사	보고서	작성기준	시나리오 오분석	Scope1 (tCO2-eq)	Scope2 (tCO2-eq)	Scope3 (tCO2-eq)	인증기관
DB손해보험	통합보고서	T, G		2,927	23,008	187	BSI Group Korea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속가능	G		142	1,001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삼성생명보험	ESG보고서	T, S, G	O	29,694	34,943	38,722,122	한국표준협회
삼성화재해상보험	통합보고서	T, G	O	3,039	11,718	3,708	BSI Group Korea
코리안리재보험	지속가능	S, G		301.3	778.3	56,710.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화생명보험	지속가능	T, S, G	O	2,971	14,432	17,242	한국표준협회
한화손해보험	지속가능	T, S, G		709	4,473	1,173,074	한국경영인증원(KMR)
현대해상화재보험	통합보고서	T, S, G		2,689.06	21,006.93	95.89	한국경영인증원(KMR)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 ▶ 해외
 -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이 올해 최종 확정되면서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기준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SRS(유럽연합공시기준)의 기후공시규칙의 윤곽이 드러남
- ▶ IFRS재단 산하기관인 ISSB는 2023년 6월 IFRS S1(일반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최종기준으로 확정
 - ▶ 기후관련공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
 - ▶ 자본시장의 투자자들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기준의 제정
 - ▶ IFRS S1은 일반보고가 아닌 재무정보공시로 재무정보와의 관련성을 요구
 - ▶ 보고채널도 재무정보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요구, 공시시기도 재무공시시점과 일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유럽연합(EU)DMS 2023년 1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를 발표하고 7월 공시기준(ESRS)를 확정
 - ▶ 10가지 주제를 다루는 First set과 산업별 기준, 중소기업용, Non-EU 기업을 위한 기준이 포함된 Second set으로 구성
 - ▶ IFRS S2에서 요구하는 기후관련 공시와 유사하지만 공시목적에 차이가 있음
 - ▶ ESRS E1은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미치는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
- ▶ SEC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상장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 ▶ 기후관련 공시규칙은 연차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공시해야 할 정보를 담은 Regulation S-K와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담은 Regulation S-X로 구성
 - ▶ Regulation S-K 15000는 거버넌스, 전략, 비즈니스모델 및 전망,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영향, Scope 1 & 2 공시
 - ▶ SEC 기후법안은 기업에게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할수 있음. Scope 1 & 2는 제3자 인증의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KSSB()는 지속가능성관련 공시기준의 국제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2024년 4월 공개초안 발표
- ▶ 진행상황

일정	진행상황
2024년 1월 초	KSSB 기준(기초안)개발
2024년 1월 말	KSSB 기준(기초안) 기업 의견조회
2024년 4월	KSSB 기준(기초안) 발표
2024년 5~8월	KSSB 기준 의견조회 활동
2024년 9월~	KSSB 기준(공개초안) 피드백 분석 및 논의
이후	KSSB 기준 최종본 발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공개초안)는 의무공시기준인 제1호(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와 제2호(기후 관련 공시사항), 그리고 선택공시기준인 제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으로 구성
- ▶ KSSB 공개초안 주요 내용

의무공시 기준	제 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목적, 일반요구사항, 적용범위, 판단.불확실성 및 오류, 개념적 기반
	제 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선택기준	제 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사항)	- 국내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 정부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의무공시
 - ▶ 보고대상은 재무정보가 공시되는 재무제표보고기업과 동일 (연결실체)
 - ▶ 보고시기는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사업보고서 내 포함
 - ▶ 의무공시기준에 따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항목이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국내·외 현황

▶ 주요국가들의 지속가능성관련 공시

	한국	국제	유럽연합	미국
기준제정기구	KSSB	ISSB	EFRAG	SEC
적용대상	상장기업	채택국가 기업	EU대기업 상장SME 비EU기업	SEC상장사
보고연도	2026년 이후	2023년 확정, 국가별 적용	‘25년(FY24)	‘26년(FY25)
중요성	재무적 중요성	재무적 중요성	환경/사회+재무적 (다중이해관계자 관점)	재무적 중요성
scope3	의무화여부 및 시 기 미정	요구(적용첫해 면제)	요구 (적용첫해면제)	요구하지 않음

ESG 보고서 의무공시의 득과 실

- ▶ 의무공시의 득
- ▶ 리스크관리의 용이성 제고
 - ▶ 의무공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기준 파악
 - ▶ 필요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 ▶ 기업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esg데이터 수입
 - ▶ ESG공시 선도그룹이 말하는 공시이점 - 비용절감(63%), 시장점유율 확대(62%), 외부개입감소(54%), 평판 강화(54%)
 - ▶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보험(52.8점)
- ▶ 기업가치제고
 - ▶ ESG공시가 우수한 기업은 기업성과도 우수, ESG우수공시기업들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7% 높음
 - ▶ 비교가능성 제고로 우수한 활동에 대한 신뢰도 향상→ 자금조달 비용 감소, 투자기회 증대 및 기업가치 상승

ESG 보고서 의무공시의 득과 실

- ▶ 의무공시의 실
- ▶ 공시비용의 증가
 - ▶ ESG공시준비 기업들은 내부역량 및 경험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 관련자료의 검토와 준비로 많은 비용과 시간소요. 나중에는 내부역량의 한계에 직면
 - ▶ 기후리스크 평가 및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지향적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내부인력으로 관련정보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전문가 의존
 - ▶ 탄소배출량정보에 대한 측정 및 관리 비용 증대
- ▶ 공시정보의 책임성 증대
 - ▶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가 공시되었을 때, 의무공시는 기업에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
 - ▶ 성급한 기후리스크 공시는 소송위험에도 노출되며, 잦은 정정공시는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데이터의 신뢰성저하를 초래
 - ▶ 의무공시되는 정보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관리하는 지배구조(기후리더십)가 중요

ESG보고서 의무공시

- ▶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의무공시
- ▶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 생태다양성
 - ▶ 인적자본
 - ▶ 인권 등
- ▶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인식
 - ▶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
 - ▶ 기후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후리더십**이 중요

감사합니다